

Media Survey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 : 이용 제한 정책과 플랫폼 책임을 중심으로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빼놓기 어려운 공간이 됐다.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학습과 자기계발, 취미 활동,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용이 늘어나면서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함께, 과도한 이용이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의 원인을 이용자의 자기조절 능력에만 두기보다, 이용시간을 늘리고 반복적인 접속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의 기능과 설계 방식에도 주목하고 있다.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이용 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추천, 푸시 알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사례인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연령을 기준으로 이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요구하는 한편, 2025년 마련한 미성년자 보호 지침을 통해 중독적 설계, 유해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추천 시스템이 유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위험을 낮추며,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7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과 함께 플랫폼의 ‘중독성 디자인’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정책 논의가 단순히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둘러싸고는 찬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 및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영향을 받기 쉽고, 개인의 자기조절이나 부모의 관리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연령까지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에도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정보 습득과 또래 소통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에도 활용되는 만큼, 나이만을 기준으로 이용 자체를 제한할 경우 청소년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하거나 제한 대상이 아닌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 연령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둘러싼 논의에는 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뿐 아니라, 플랫폼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부모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소년의 자율적인 판단과 조절 능력은 어떻게 보장하고 키울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얹혀 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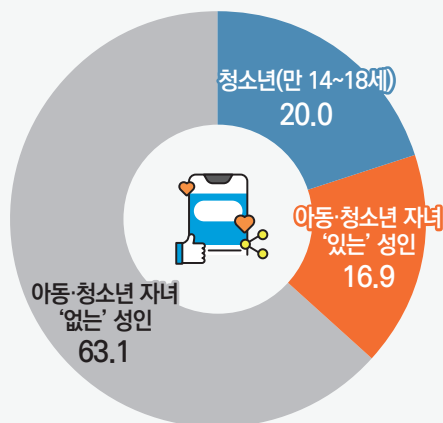
만 14~58세¹⁾ 1,000명을 대상으로²⁾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살펴봤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 14~18세 청소년³⁾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성인은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해 인식 차이를 비교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청소년 당사자의 이용 양상 및 부모·학교의 지도·교육 경험을 살펴보는 한편, 플랫폼 기능과 책임에 대한 인식,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찬반과 예상되는 한계·부작용, 다양한 보호 방안의 중요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접근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특히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청소년과 소셜미디어'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 인식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이 평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전반적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서로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집단들로 구분하고 그 구성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했다. 우선, 만 19세를 기준으로 청소년(만 14~18세)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1차로 나눈 후, 성인 응답자를 다시 아동·청소년(만 5~18세) 자녀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했다. 본 조사에서 관심을 두는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의 주체는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아동'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청소년이 될 것을 고려해, 청소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동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응답자 집단 구성: '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기준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 1) 2023년 6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됐으나,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학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연령 구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도 소위 '우리 나이'를 기준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각 20%씩 할당해 응답자를 모집했다. 예를 들어 '우리 나이' 기준 20대는 만 나이로는 19~28세에 해당하며, 이들을 20대로 분류했다.
- 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관련 정책·규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부모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여성 응답자 비중을 약 2/3로 높이고 나머지 1/3가량을 남성에게 할당했다.
- 3) 각종 법·제도상 "청소년" 연령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조사대행 업체의 패널로 등록돼 있어 설문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4세'부터,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 전인 '만 18세까지'로 범위를 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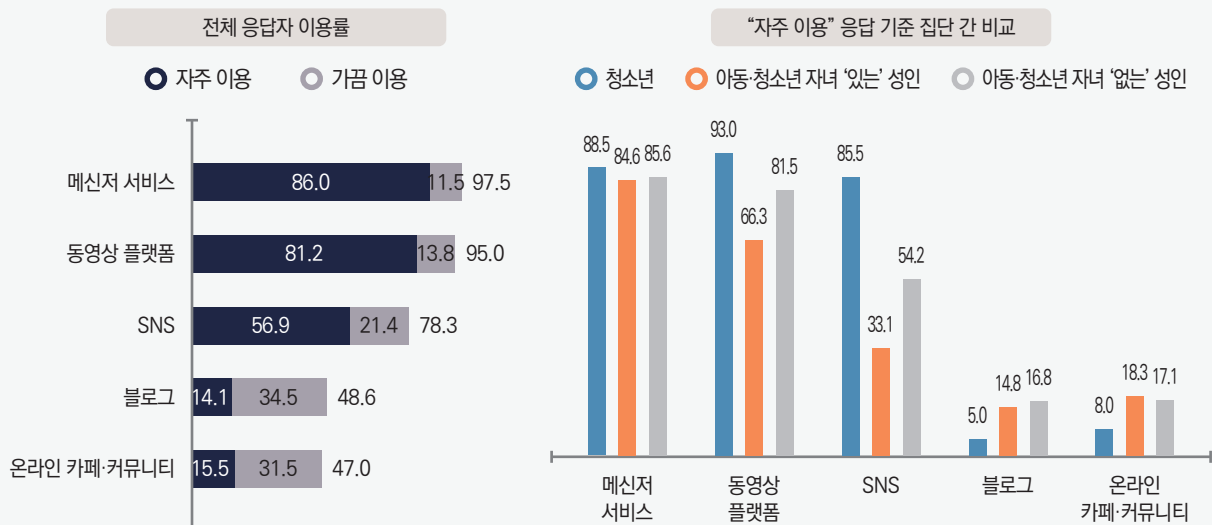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연령대에 따라 1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20%(200명)씩 사전 할당하는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청소년을 제외한 800명의 성인 가운데, 자녀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6%였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301명 가운데 56.1%(169명)는 만 5~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하면, 전체 조사대상 1,000명을 ‘청소년’ 여부, 그리고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청소년’ 집단 20.0%,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 집단 16.9%, ‘아동·청소년 자녀 없는 성인’ 집단 63.1%로 확인됐다. 이 세 집단은 이후 분석에서 하위집단별 비교 시 구분 기준으로 활용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평소 소셜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초적으로 살펴봤다. 소셜미디어 유형으로 총 5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이용 빈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이용 안 함, 4점: 자주 이용함)로 알아본 결과, 이용률 자체가 가장 높은 소셜미디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97.5%: 자주 이용 86.0%, 가끔 이용 11.5%)로 나타났다. 그 뒤를 근소한 차이(2.5%p)로 유튜브, 틱톡 등의 ‘동영상 서비스’(95.0%)가 이었다. 3위 ‘SNS’(78.3%)부터는 이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커뮤니티’는 50% 미만 비율을 보였다.

메신저와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이용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추가분석에서는 이용 정도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주 이용”(4점)한다고 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집단별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메신저’는 세 집단 모두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80%대 중후반으로 대동소이한 반면, ‘동영상 플랫폼’은 ‘청소년’ 집단(93.0%)이 ‘아동·청소년 자녀 없는 성인’(81.5%),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66.3%) 대비 각각 11.5%p, 26.7%p 더 높았다. ‘SNS’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청소년’은 SNS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85.5%에 이르렀으나, 나머지 두 성인 집단은 각각 54.2%, 33.1%에 그쳤다.

‘소셜미디어 유형’별 이용자 비율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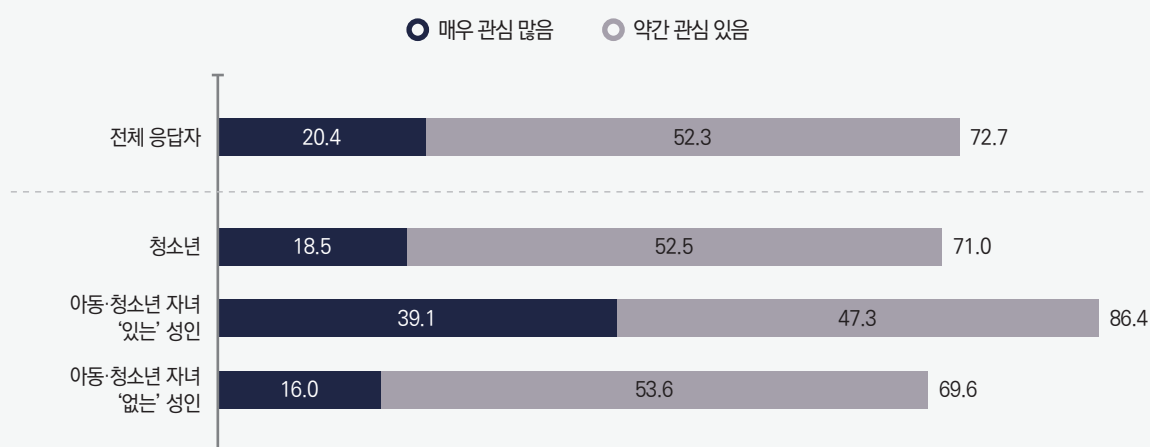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소 응답자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4점 척도(1점: 전혀 관심 없음, 4점: 매우 관심 많음)로 물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7%가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관심 많음’은 20.4%, ‘약간 관심 있음’은 52.3%였다. 즉,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구분한 세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 집단의 관심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매우 관심 많음’(39.1%) 또는 ‘약간 관심 있음’(47.3%)이라고 답한 비율이 86.4%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청소년’ 집단의 관심 비율은 71.0%(매우 관심 많음 18.5%, 약간 관심 있음 52.5%)였으며, ‘아동·청소년 자녀가 없는 성인’ 집단은 69.6%(각각 16.0%, 53.6%)로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 당사자의 관심 수준은 자녀가 없는 성인 집단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대한 평소 관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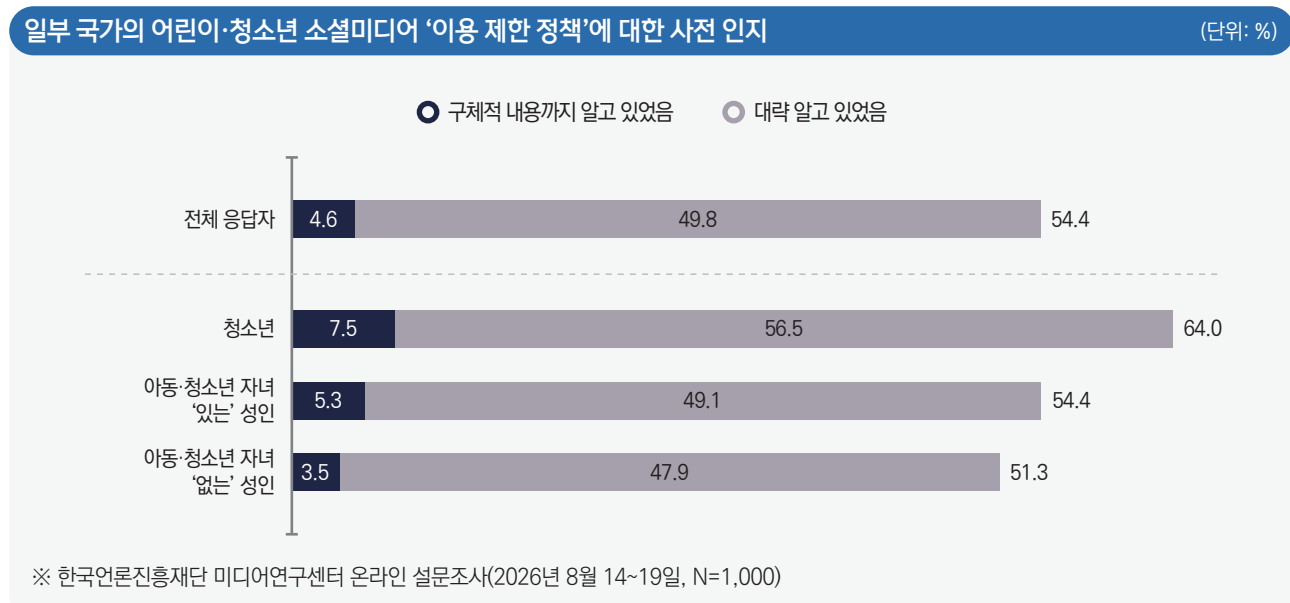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최근 일부 국가(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응답자들이 관련 해외 정책 동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봤다. 사전 인지 수준은 “전혀 알지 못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몰랐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의 4개 선택지를 주고 고르게 했다.

조사 결과,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9.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비율은 4.6%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54.4%가 일부 국가에서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 조사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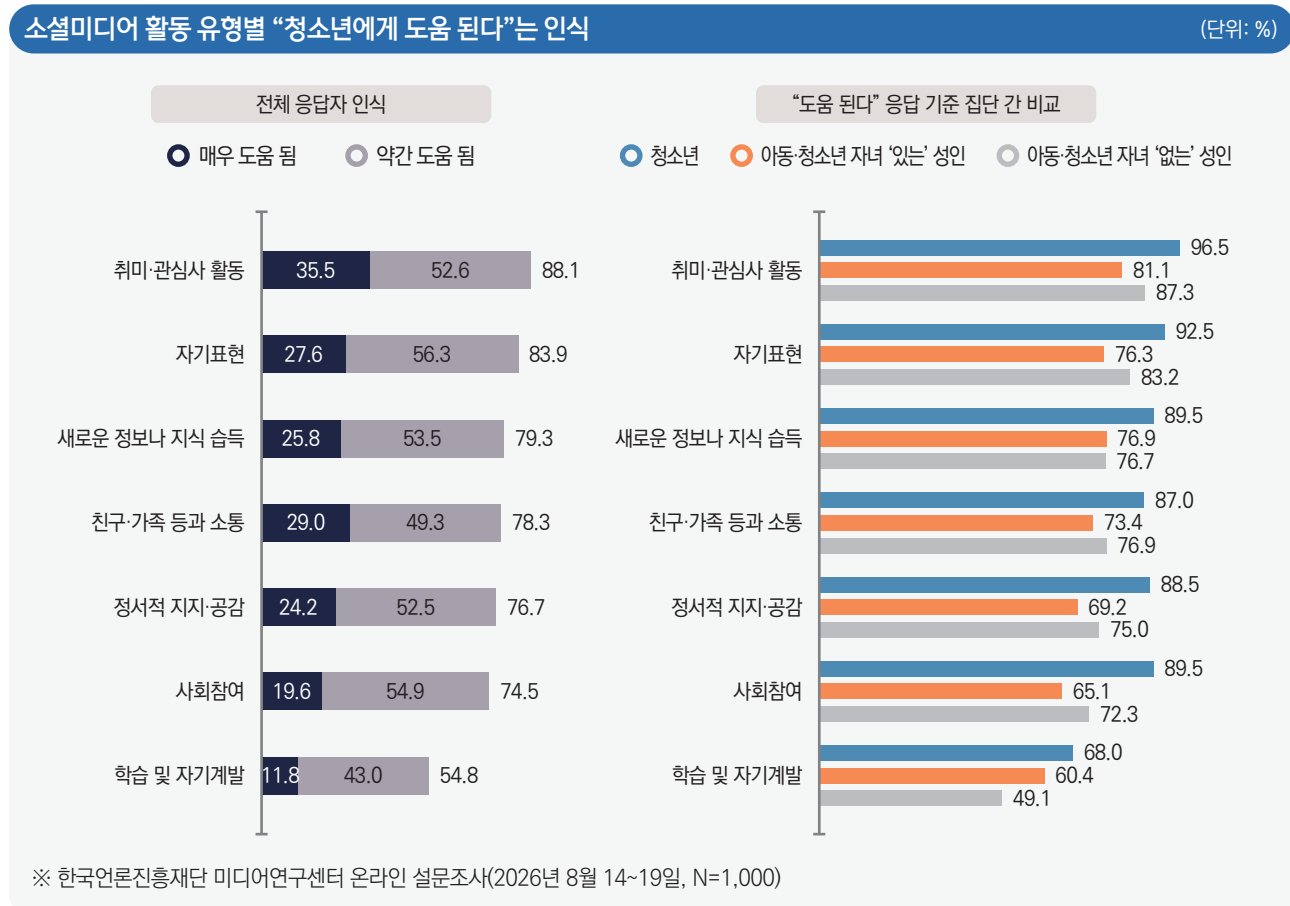
세 집단 가운데 관련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쪽은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의 56.5%가 ‘대략적인 내용’을, 7.5%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답해, 이를 합한 비율이 64.0%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의 사전 인지율은 54.4%(각각 49.1%, 5.3%)로 나타났고, ‘아동·청소년 자녀가 없는 성인’(51.4%)은 그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대한 평소 관심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에게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해외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사전 인지는 청소년 당사자에게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총 7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도움 안 됨, 4점: 매우 도움 됨)로 알아봤다. 조사 결과, 제시한 활동 가운데 ‘취미·관심사 활동’이 긍정 평가 88.1%(매우 도움 됨 35.5%, 약간 도움 됨 52.6%)로 가장 많았다. 콘텐츠 제작을 포함한 ‘자기표현’(83.9%) 또한 도움 된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으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79.3%), ‘친구·가족 등과 소통’(78.3%),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등 ‘정서적 지지·공감’(76.7%), 사회적 이슈 공유, 의견 표현 등의 ‘사회참여’(74.5%)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명 중 3명 안팎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학습 및 자기계발’은 54.8%로 다른 활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낮았다.

앞서 구분한 세 집단별로 ‘매우 도움 됨’ 또는 ‘약간 도움 됨’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산해 비교한 결과, 모든 활동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다. 청소년은 ‘취미·관심사 활동’(96.5%)과 ‘자기표현’(92.5%)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봤으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과 ‘사회참여’도 각각 89.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성인 두 집단과의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벌어진 활동은 ‘사회참여’와 ‘정서적 지지·공감’이었다. ‘사회참여’가 도움이 된다는 청소년은 89.5%였던 데 비해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은 65.1%, ‘아동·청소년 자녀 없는 성인’은 72.3%였으며, ‘정서적 지지·공감’에서도 각각 88.5%, 69.2%, 75.0%로 제법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은 7개 활동 모두에서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낮았으며, ‘취미·관심사 활동’을 포함한 다수 항목에서 ‘아동·청소년 자녀 없는 성인’보다도 낮았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실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은 상대적으로 더 유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에 이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폭력’, ‘학업 방해’ 등 총 7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해롭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해롭지 않음, 4점: 매우 해로움)로 물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해롭다’는 응답이 80%를 넘을 정도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유해 콘텐츠(허위정보 포함) 노출’은 95.5%가 해롭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해로움’ 응답만도 72.9%에 달했다. ‘사이버폭력’(94.3%), ‘학업 방해’(93.8%),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93.2%), 수면 부족, 시력 저하 등 ‘신체 건강 문제’(92.8%)도 90%를 웃돌았고, ‘외모·생활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91.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가족·친구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감소’도 84.2%가 해롭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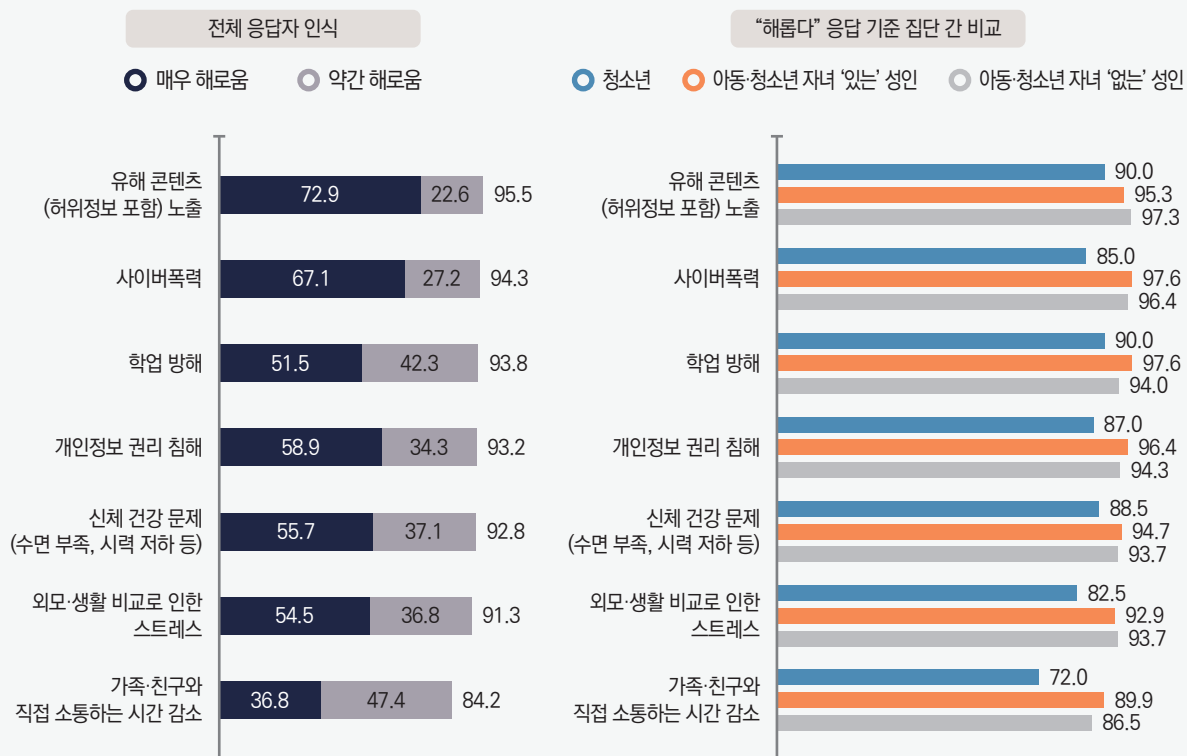
앞서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의 평가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의 우려가 가장 강한 경향이 관찰됐다. 이 집단은 ‘사이버폭력’과 ‘학업 방해’에 대해 각각 97.6%가 해롭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 권리 침해’(96.4%), ‘유해 콘텐츠 노출’(95.3%),

‘신체 건강 문제’(94.7%)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대 중후반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학업 방해’에 대해서는 각각 90.0%가 해롭다고 평가했지만, ‘개인정보 권리 침해’(87.0%), ‘사이버폭력’(85.0%), ‘외모·생활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82.5%)에서는 성인 두 집단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친구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감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부정적 평가가 72.0%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앞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결과와 함께 놓고 보면 집단별 인식의 특징이 보다 분명해진다. 청소년은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을 성인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은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보적이면서 부정적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다만 세 집단 모두 대부분의 부정적 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문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활동 유형별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인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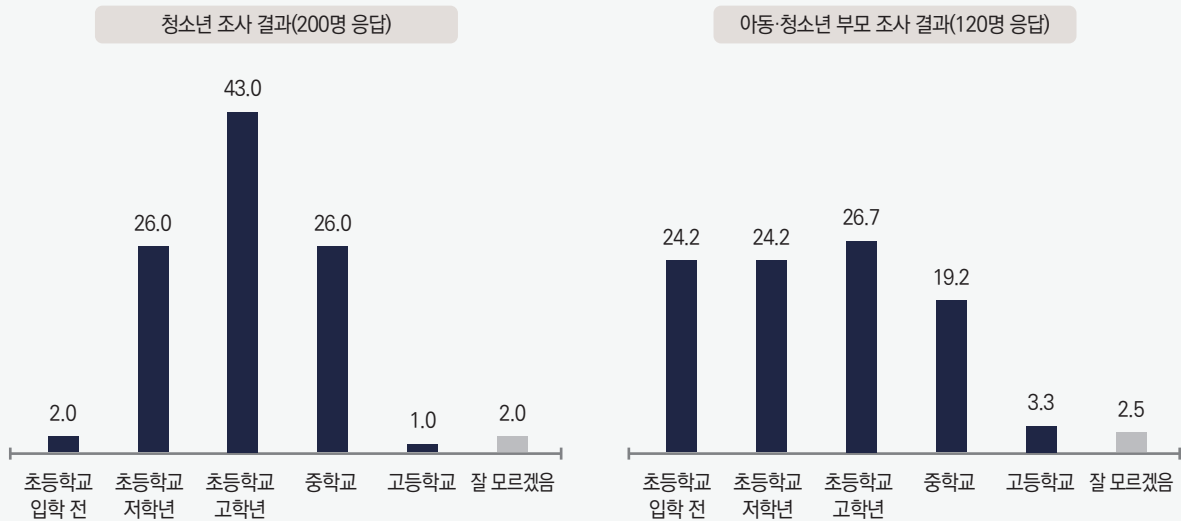
0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양상 및 부모의 관련 지도·교육 경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언제 이용하기 시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 14~18세 청소년 200명에게 자신의 최초 이용 시기를 물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중학교’가 각각 26.0%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용했다는 응답은 2.0%였고, ‘고등학교’는 1.0%에 그쳤으며 ‘대학교’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69.0%가 초등학교 재학 중, 입학 전까지 포함하면 71.0%가 중학교 진학 전에 소셜미디어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에게는 해당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 여부와 최초 이용 시기를 물었다.⁴⁾ 169명 가운데 해당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현재 이용 중’이라는 응답은 62.7%,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한 적 있음’은 8.3%였다.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최초 이용 시기를 추가로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근소한 차이로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각각 24.2%로 이었고, ‘중학교’가 19.2%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는 3.3%였으며 ‘대학교’라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청소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진학 전에 처음 이용했다는 응답이 75.1%로 다수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최초 이용’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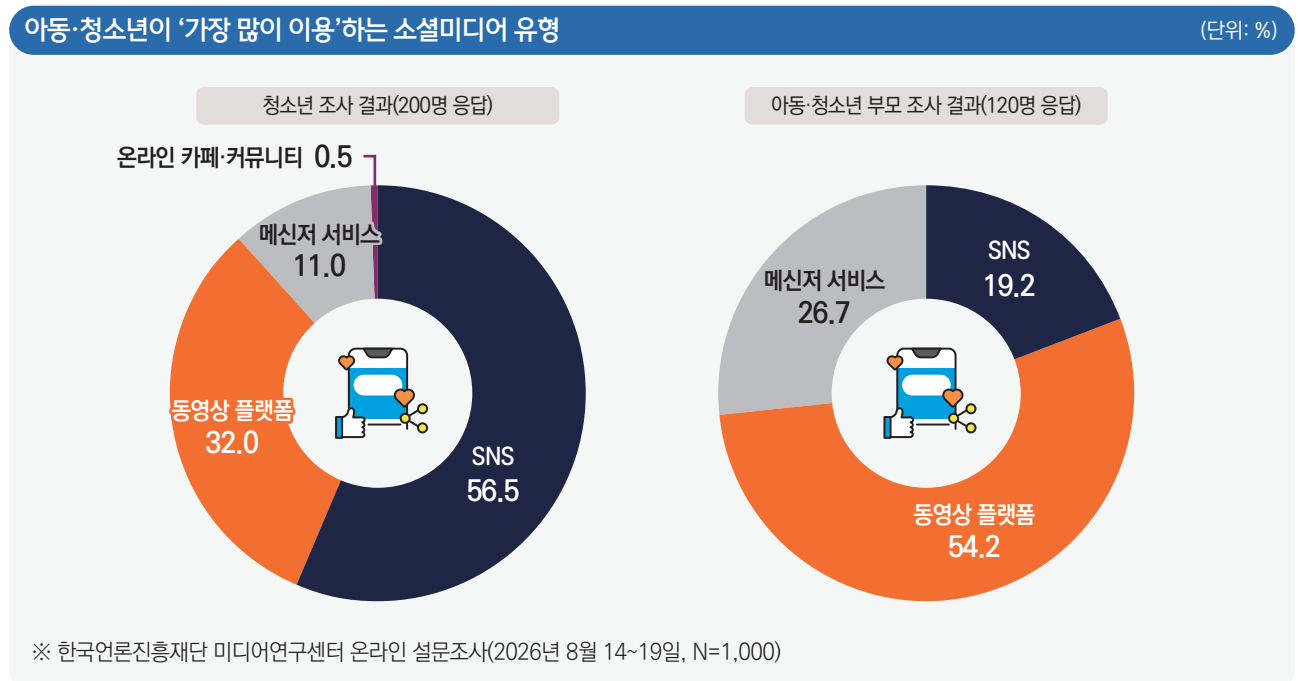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4) 만 5~18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가장 어린 자녀는 본 조사의 주 관심 대상인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가장 나이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자녀가 향후 소셜미디어 이용환경과 관련된 각종 정책·보호조치의 영향을 보다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후 아동·청소년 자녀와 관련된 부모 대상 문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두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조사는 현재 만 14~18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부모 조사에는 이들보다 어린 만 5~13세 자녀도 포함돼 있어 조사대상의 연령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용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합계 48.4%로, 청소년 본인 조사(28.0%)보다 20.4%p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모 조사에 만 14~18세 청소년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자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최근 어린 세대로 올수록 소셜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유형의 소셜미디어 가운데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는지도 알아봤다.⁵⁾ 만 14~18세 청소년 200명에게 평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유형 하나를 고르게 한 결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의 ‘SNS’가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튜브, 틱톡 등의 ‘동영상 플랫폼’은 32.0%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의 ‘메신저 서비스’는 11.0%였다. ‘온라인 카페·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고, ‘블로그’를 선택한 청소년은 없었다.

부모 조사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확인됐다. 앞선 문항에서 아동·청소년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부모 응답자 120명 대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 자녀가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이 54.2%로 절반을 넘었다. ‘메신저 서비스’가 26.7%로 뒤를 이었고, 청소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SNS’는 19.2%로 세 번째였다.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둘 다 선택 비율이 0.0%였으며, ‘잘 모르겠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전혀 없었다.



5) 만 14~18세 청소년 응답자 200명 가운데 본 조사에서 제시한 소셜미디어 5가지 유형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용 웹페이지를 설계할 때 앞 절에서 살펴본 “소셜미디어 유형별 이용자 비율” 문항에서 5개 유형 모두 “전혀 이용 안 함”을 선택한 사람은 이 문항을 건너뛰도록 설정돼 있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집단의 조사 결과 차이는 부분적으로 청소년과 부모 간 인식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소셜 미디어 최초 이용 시기와 마찬가지로, 부모 조사에는 만 14~18세 청소년보다 어린 만 5~13세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조사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54.2%로 청소년 조사(32.0%)보다 22.2%p 높은 반면, ‘SNS’는 19.2%로 청소년 조사(56.5%)보다 37.3%p 낮았다. 이러한 차이에서 현재의 아동 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 소셜미디어 이용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선 조사에서 부모가 응답한 자녀의 소셜미디어 최초 이용 시기가 청소년 당사자보다 이른 경향을 보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최근 어린 세대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이 보다 일찍 시작되는 동시에, 동영상 플랫폼이 주요 이용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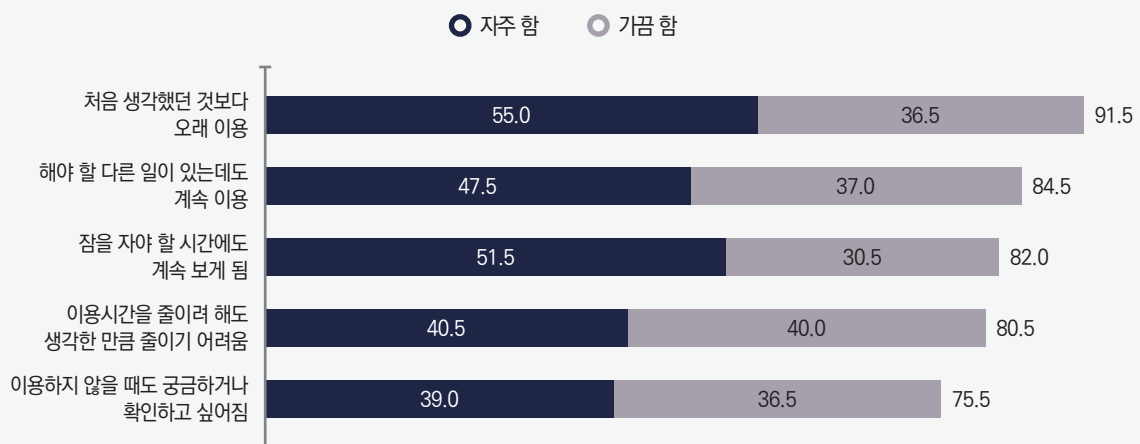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 14~18세 청소년 200명에게 총 5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험 빈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안 함, 4점: 자주 함)로 물었다. 그 결과,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이용한다”는 경험이 91.5%(자주 함 55.0%, 가끔 함 3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 대부분이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데도 계속 이용한다”는 경험이 84.5%,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계속 보게 된다”는 경험이 82.0%로, 모두 80%를 웃돌았다.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생각한 만큼 줄이기 어렵다”는 응답 역시 80.5%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용하지 않을 때도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어진다” 또한 75.5%에 달했다. 특히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소셜미디어 이용을 계속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51.5%가 자주 있다고 답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이용한다”(55.0%)에 이어 빈번하게 경험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이었다.

종합하면, 제시한 5가지 상황 모두 청소년 4명 중 3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함’이라는 응답만 따로 보더라도 39.0~55.0%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겪는 이용 조절의 어려움이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기보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조절 어려움’ 경험(200명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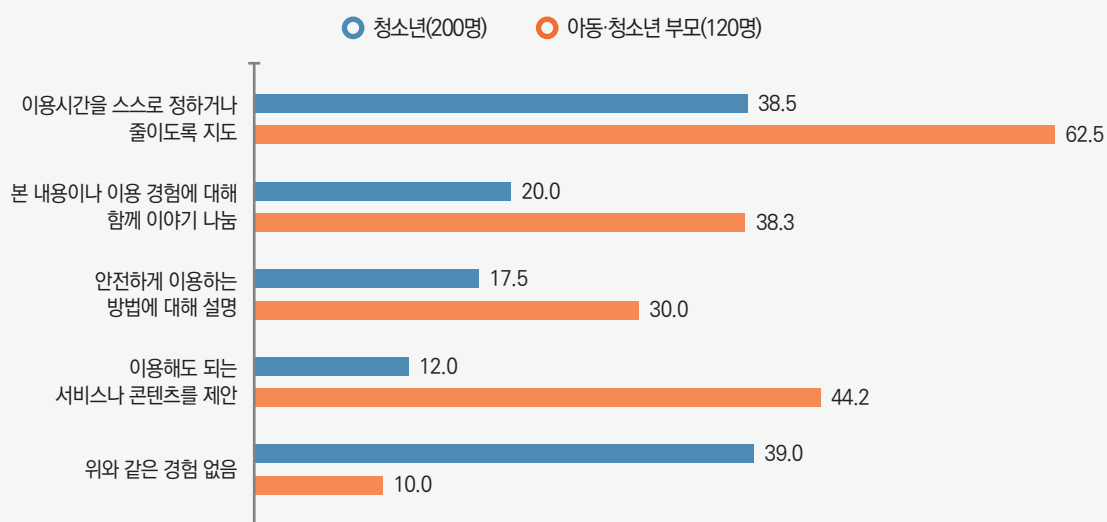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가정에서 어떤 지도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청소년과 부모 양쪽을 대상으로 알아봤다. 청소년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200명 응답자 전체가 현재 소셜미디어를 1개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모두 이 문항에 답한 반면, 아동·청소년 부모 집단(169명)에서는 자녀가 현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120명만 답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기준으로 총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청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스스로 정하거나 줄이도록 지도’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응답 비율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청소년의 38.5%가 부모(혹은 다른 보호자)로부터 이러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 가운데서는 그보다 24.0%p 많은 62.5%가 해당 자녀에게 이와 같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도·교육 경험에서도 부모 집단의 응답 비율이 청소년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내용이나 이용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청소년은 20.0%였던 데 비해 부모는 38.3%였으며, ‘소셜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경험은 각각 17.5%, 30.0%였다. 특히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이용해도 되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부모의 44.2%는 해당 자녀에게 그렇게 지도한 적 있다고 답했지만, 청소년 가운데서는 지도받은 경험 있다는 응답이 12.0%로, 그보다 32.2%p 낮았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된 유형들 가운데 어떤 지도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소년은 39.0%에 이르렀으나, 부모는 10.0%⁶⁾에 그쳤다.

최근 1년간 ‘부모’의 자녀 소셜미디어 ‘이용 지도’ 경험: 청소년·학부모 응답 비교(중복선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6)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최근 1년 동안 “위와 같은 지도나 교육을 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부모 12명에게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타’ 포함 총 7가지 제시한 후 모두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녀가 스스로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58.3%(7명)로 가장 많았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몰라서”와 “나섰다가 오히려 반발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가 각각 33.3%(4명)였으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와 “지도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는 각각 16.7%(2명)로 나타났다. 단, 응답자 수가 12명에 불과하므로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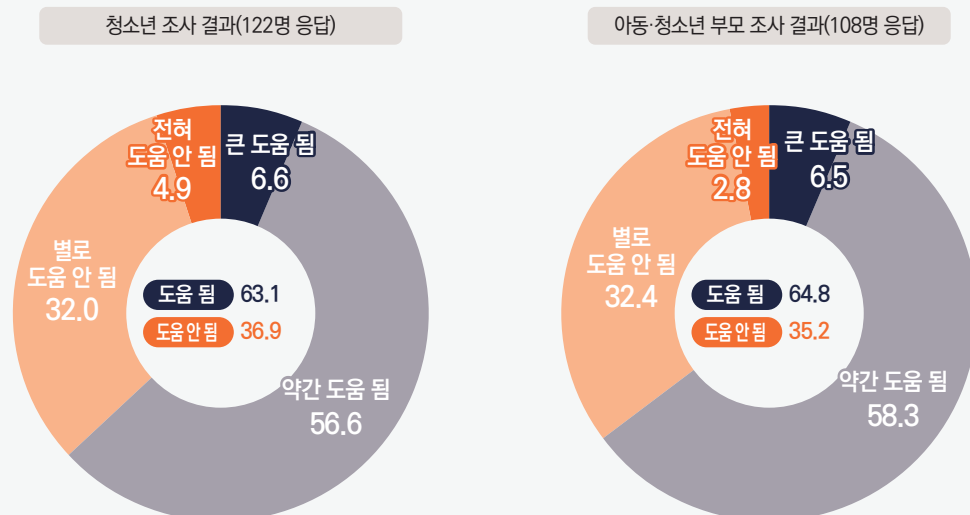
두 집단의 응답은 서로 매칭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동일한 지도 경험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인식 차이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 조사는 만 14~18세 당사자가 최근 1년 동안 받은 지도 경험을 답한 결과인 반면, 부모 조사에는 만 5~13세의 더 어린 자녀에 대한 지도 경험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가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여하거나 지도하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서 확인된 응답 격차에는 지도 경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조사대상이 된 자녀의 연령 구성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로부터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지도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122명)과,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그러한 지도나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부모(108명)에게 해당 지도가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점: 큰 도움이 되었다)로 조사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63.1%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도나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큰 도움이 됨’은 6.6%, ‘약간 도움이 됨’은 56.6%였으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32.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4.9%로 나타났다.

부모의 평가도 청소년과 매우 유사했다. 자녀에게 한 지도나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4.8%(큰 도움 됨 6.5%, 약간 도움 됨 58.3%)로, 청소년의 긍정 평가보다 1.7%p 높은 데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청소년 36.9%, 부모 35.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앞선 조사에서 부모의 지도·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부모 집단의 응답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 반면, 실제 지도·교육을 경험하거나 시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두 집단 모두 60% 이상이 부모의 지도·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모의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지도’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도움 된다”는 평가: 청소년·학부모 응답 비교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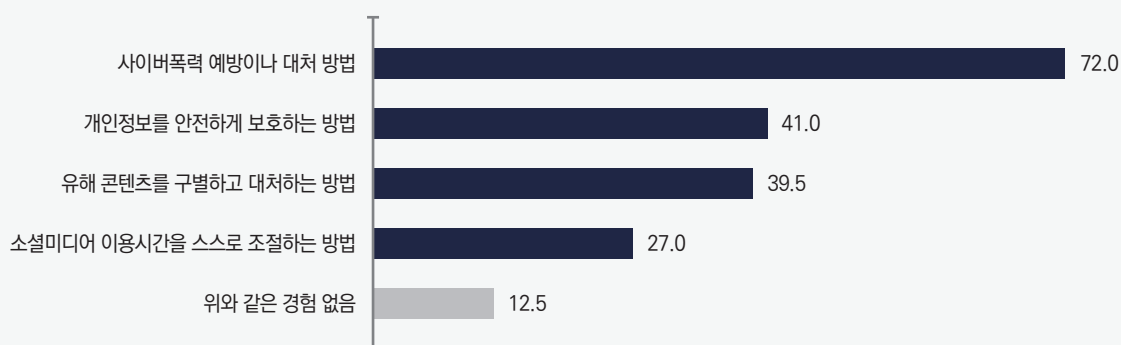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지도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알아봤다. 만 14~18세 청소년 200명에게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받은 지도·교육 경험을 총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사이버폭력 예방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72.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41.0%, ‘유해 콘텐츠(허위정보 등)를 구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39.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는 응답은 27.0%로 가장 낮았다.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지도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청소년은 12.5%였고, 이는 청소년 응답자 87.5%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지도·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교육이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폭력 예방·대처’ 교육은 다수의 청소년이 경험한 반면, ‘개인정보 보호’나 ‘유해 콘텐츠 대응’ 교육은 40% 안팎,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학교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교육이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처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청소년의 ‘학교’ 소셜미디어 ‘이용 지도·교육’ 받은 경험 (200명 응답, 중복선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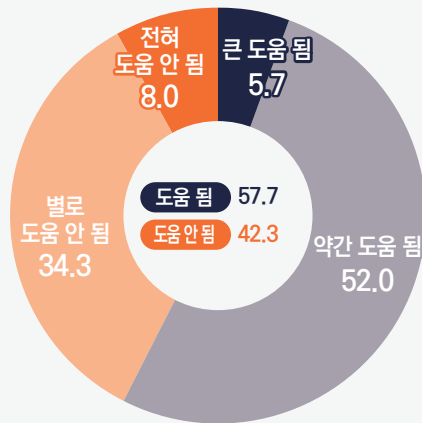
앞선 문항에서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지도나 교육을 한 가지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175명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부모 지도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게 4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점: 큰 도움이 되었다)로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는 57.7%였다. 구체적으로 ‘큰 도움이 됨’은 5.7%, ‘약간 도움이 됨’은 52.0%였으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은 34.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8.0%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은 지도·교육에 대해서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평가(42.3%)보다 15.4%p 많았지만, 앞서 부모로부터 지도·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긍정 평가(63.1%)와 비교하면 5.4%p 낮은 수준이다. 특히 크게 도움이 됐다는 적극적인 평가는 부모 지도 6.6%, 학교 교육 5.7%로 두 경우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고, 긍정 평가의 대부분은 ‘약간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차지했다.

다만 부모와 학교의 구체적인 지도·교육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이러한 수치만으로 어느 쪽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실제 지도·교육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부모 지도는 63.1%, 학교 교육은 57.7%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교육 모두 청소년 당사자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받은 지도·교육’이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도움 된다”는 청소년 평가(175명 응답)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03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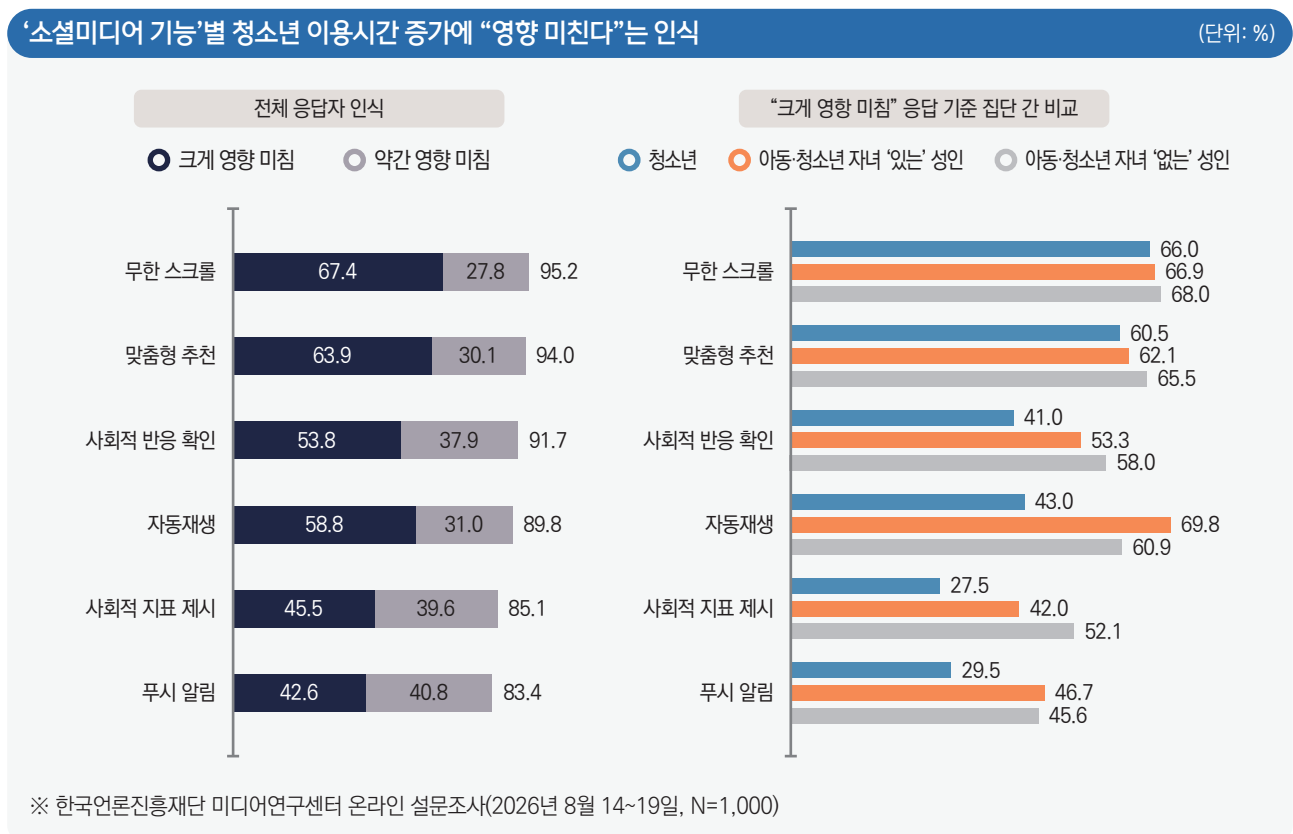
1) 소셜미디어 플랫폼 책임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늘리는 데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봤다. 총 6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각각의 영향 정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영향 없음, 4점: 크게 영향 미침)로 물어본 결과, 모든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콘텐츠가 계속 이어지도록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무한 스크롤’로 95.2%(크게 영향 미침 67.4%, 약간 영향 미침 27.8%)에 달했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시하는 ‘맞춤형 추천’도 94.0%로 비슷하게 높았다. 다른 이용자의 ‘좋아요’, 댓글 등 ‘사회적 반응 확인’은 91.7%, 하나의 콘텐츠가 끝나면 다음 콘텐츠가 이어지는 ‘자동재생’에 대해서는 89.8%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팔로워·조회수·좋아요 수 등 ‘사회적 지표 제시’(85.1%)와 새로운 콘텐츠나 반응 등을 알려주는 ‘푸시 알림’(83.4%) 역시 80%를 웃돌았다.

소셜미디어 기능이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세 집단 간 비교에서는 “크게 영향 미친다”는 적극적인 응답만 따로 떼서 살펴봤다. ‘무한 스크롤’과 ‘맞춤형 추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60%대 비율을 보이면서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무한 스크롤’의 경우, 청소년 66.0%,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 66.9%, 자녀 없는 성인 68.0%로 특히 편차가 적은 편이었다.

반면 나머지 기능에서는 청소년보다 성인이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은 ‘사회적 지표 제시’와 ‘자동재생’이었다. 팔로워·조회수·좋아요 수 등 ‘사회적 지표 제시’가 청소년의 이용시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27.5%였던 데 비해,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은 42.0%, 자녀 없는 성인은 52.1%로 나타났다. ‘자동재생’에서도 청소년은 43.0%에 그친 반면, 성인 두 집단은 각각 69.8%, 60.9%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적 반응 확인’과 ‘푸시 알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의 응답이 성인 두 집단보다 낮다는 공통적인 양상이 확인됐다.

종합하면,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집단에 따라 다소 다른 인식을 보였다. ‘무한 스크롤’과 ‘맞춤형 추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그 영향이 크다고 평가한 반면, 나머지 네 가지 기능에서는 청소년 당사자가 성인보다 “크게 영향 미친다”고 평가한 비율이 일관되게 낮았다. 즉, 플랫폼 기능이 청소년의 이용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개별 기능의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보는 지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어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플랫폼 기능들을 앞선 문항과 동일하게 보기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무한 스크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재생’도 54.2%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적 반응 확인’은 48.6%로 그 뒤를 이었고, ‘맞춤형 추천’(40.6%)과 ‘사회적 지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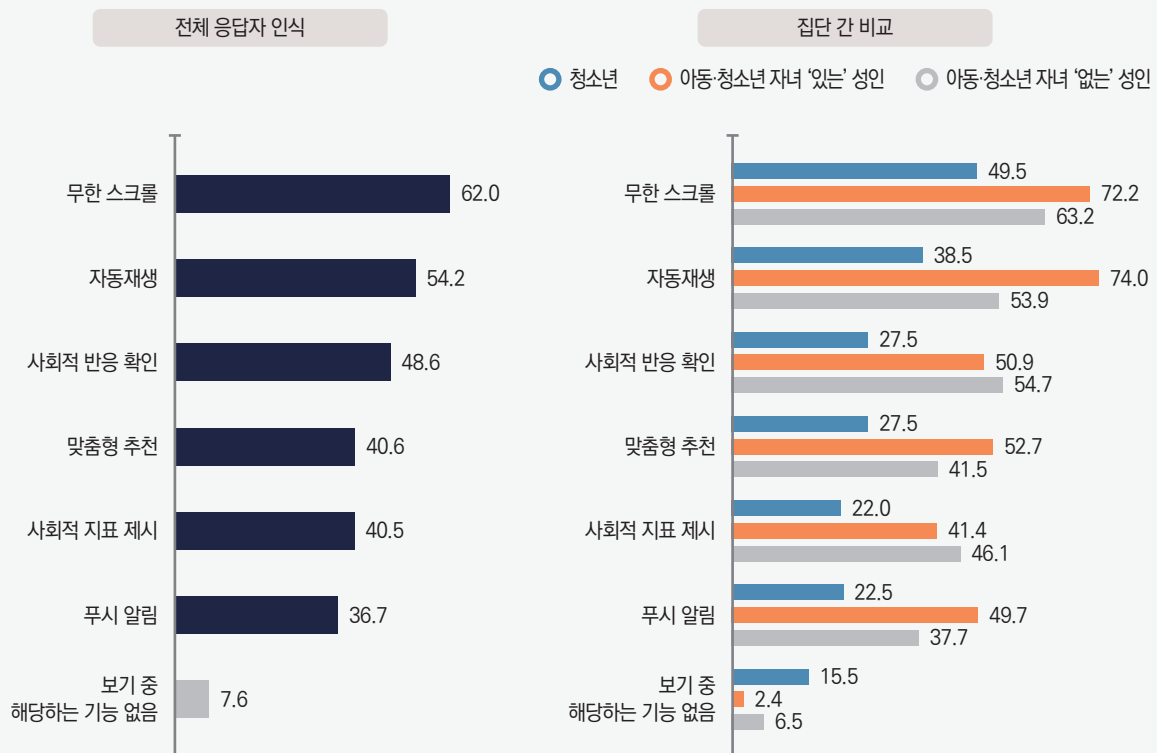
시’(40.5%)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푸시 알림’은 36.7%로 6개 기능 가운데 가장 선택 비율이 낮았다. 한편 제시된 기능 가운데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6%에 그쳐,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92.4%)이 한 가지 이상 기능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집단별 비교 결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인식 차이가 비교적 뚜렷했다. 청소년은 6개 기능 모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성인 두 집단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자동재생’은 청소년의 38.5%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데 비해,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은 74.0%, 자녀 없는 성인은 53.9%로, 집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무한 스크롤’에서도 각각 49.5%, 72.2%, 63.2%로 청소년의 제한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기능이 없다’는 응답은 청소년이 15.5%로,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2.4%)이나 자녀 없는 성인(6.5%)보다 높았다.

성인 두 집단 가운데서는 대체로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이 제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기능에서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맞춤형 추천’과 ‘푸시 알림’에 대해서는 자녀 있는 쪽이, ‘사회적 반응 확인’과 ‘사회적 지표 제시’에서는 자녀 없는 성인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당사자가 플랫폼 기능의 제한 필요성을 성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가운데, 성인 내부에서는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기능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복선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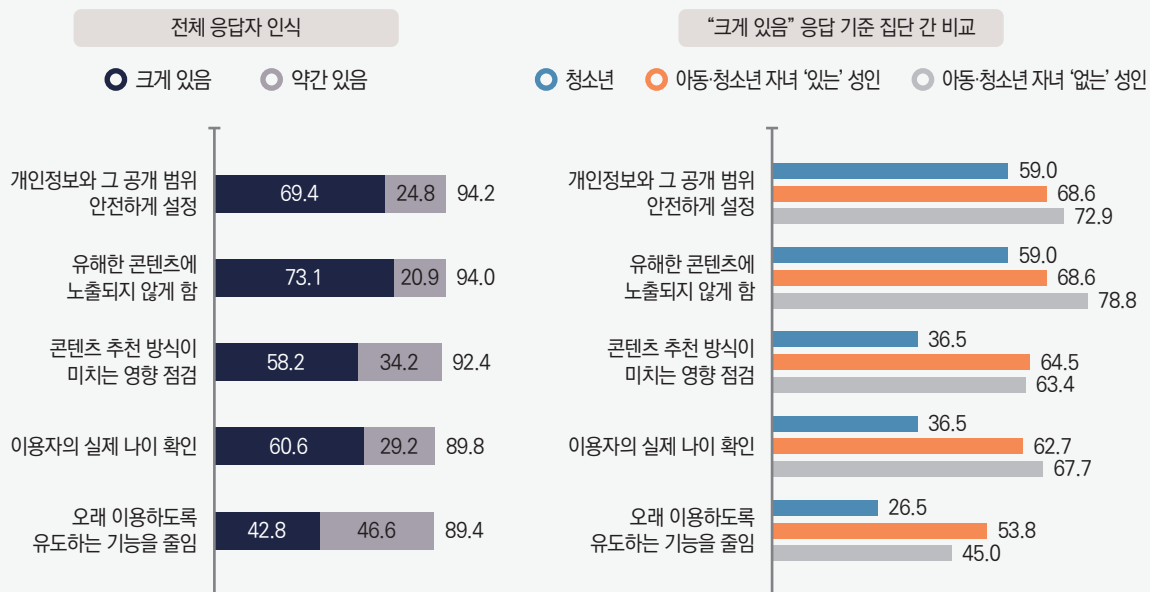
앞선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각 기능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해당 기능의 제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맞춤형 추천’은 94.0%가 이용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지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6%였으며, ‘자동재생’은 영향 평가(89.8%)에서는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제한 필요성(54.2%) 선택 비율은 ‘맞춤형 추천’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기능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과 해당 기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서로 구별되는 차원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플랫폼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알아봤다. 플랫폼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 총 5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없음, 4점: 크게 있음)로 물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89%를 넘을 정도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계정의 개인정보와 그 공개 범위 등을 안전하게 설정할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94.2%(크게 있음 69.4%, 약간 있음 24.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도 94.0%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콘텐츠 추천 방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책임’(92.4%) 역시 90%를 웃돌았고, ‘청소년 이용자의 실제 나이 확인’(89.8%)과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오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축소’(89.4%)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꼴로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체적인 책임 인식 비율이 높은 만큼, 세 집단 간 비교에서는 “크게 있음”이라는 적극적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5개 항목 모두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성인 두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콘텐츠 추천 방식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36.5%)과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64.5%), 자녀 없는 성인(63.4%) 간 차이가 약 27~28%p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하게, ‘이용자의 실제 나이 확인’, ‘오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축소’에 대해서도 청소년과 성인 두 집단 간에 큰 격차가 확인됐다.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인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종합하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는 성인에 비해 플랫폼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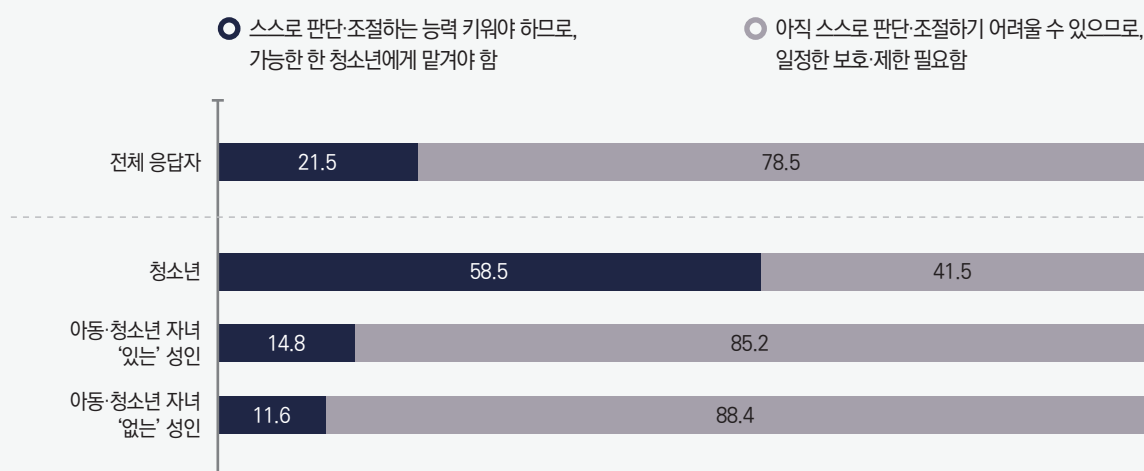
청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자율성과 보호·제한에 대해 응답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므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선택을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맡겨야 한다”, “청소년은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일정한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두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5%가 ‘보호·제한 필요성’ 입장을 선택한 반면, ‘자율성 보장’ 쪽은 21.5%에 그쳤다. 즉,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어느 정도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단, 응답자 전체 결과로 보면 ‘보호·제한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가운데 성인이 80%를 차지하는 표본 구성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 집단을 구분해서 보면 청소년과 성인 간 인식 차이가 매우 뚜렷했다. 청소년은 과반인 58.5%가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선택을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는 ‘보호·제한 필요성’(41.5%)보다 17.0%p 높은 비율이다.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 85.2%, 자녀가 없는 성인 88.4%가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쪽 입장을 택했다. 즉, 성인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대다수가 보호·제한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당사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대 ‘보호·제한 필요성’ 인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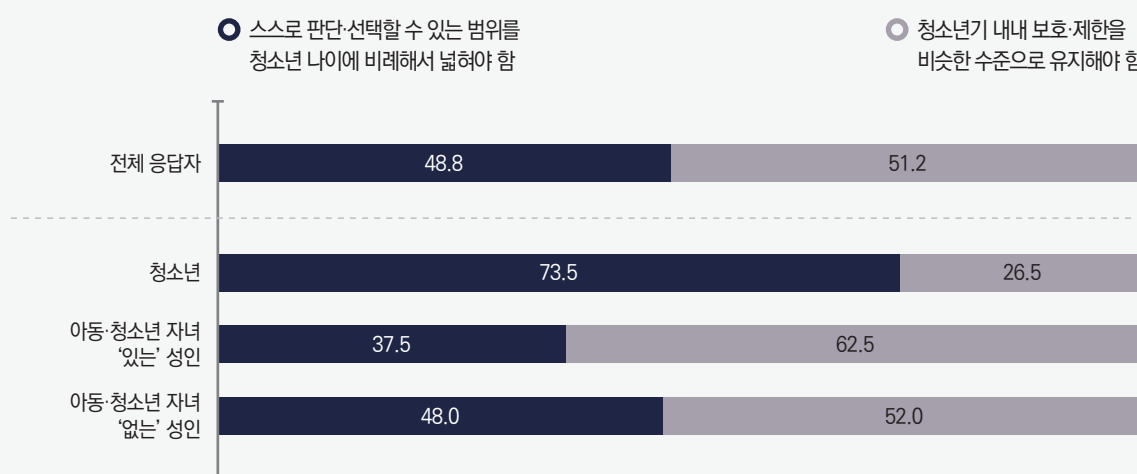
앞선 문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일정한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선택한 785명에게는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자율성의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추가로 물었다.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나이가 많아 지더라도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보호와 제한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대비되는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나이에 비례하는 자율성 확대’ 쪽을 선택한 비율은 48.8%, ‘청소년기 내내 보호·제한 비슷하게 유지’는 51.2%로, 양쪽 입장의 차이가 2.4%p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자 집단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 청소년은 73.5%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연령에 비례하도록 넓혀야 한다고 답한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비슷한 수준의 보호·제한 유지’가 62.5%로 ‘연령에 따른 자율성 확대’(37.5%)보다 25.0%p 더 높았다. 자녀가 없는 성인은 두 입장이 각각 52.0%, 48.0% 비율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앞선 결과와 함께 종합해 보면,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할 뿐 아니라, 일정한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도 청소년의 나이에 비례해서 자율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성인은 상대적으로 자율성보다는 보호·제한 쪽, 그리고 청소년기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하는데 더 무게를 두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 ‘자율성 확대’ 대 ‘보호·제한 유지’ 인식(785명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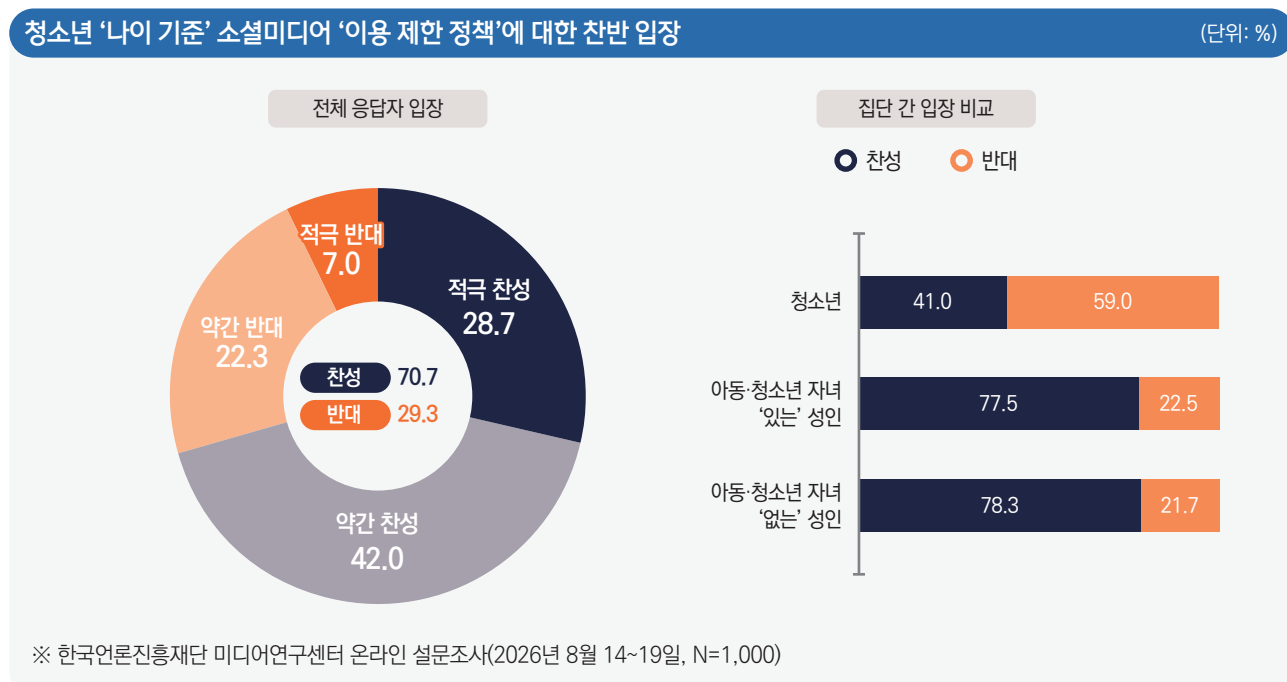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이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알아봤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찬성과 반대 측의 주요 논거를 각각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여주고, 4점 척도(1점: 적극 반대, 4점: 적극 찬성)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7%가 이용 제한 정책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9.3%였다. 구체적으로, ‘적극 찬성’은 28.7%, ‘약간 찬성’은 42.0%였고, ‘약간 반대’ 22.3%, ‘적극 반대’ 7.0%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청소년과 성인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청소년은 찬성 41.0%, 반대 59.0%로 반대가 18.0%p 더 많았다.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3%가 찬성 입장이었다. 즉, 해당 정책이 도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 집단에서는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가 확인된 것이다.

앞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보호·제한 필요성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은 자율성을, 성인은 보호·제한 필요성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러한 인식 차이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찬반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성인의 경우 아동·청소년 자녀 유무에 따른 찬성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던 만큼, 이용 제한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부모 여부보다는 청소년 당사자와 성인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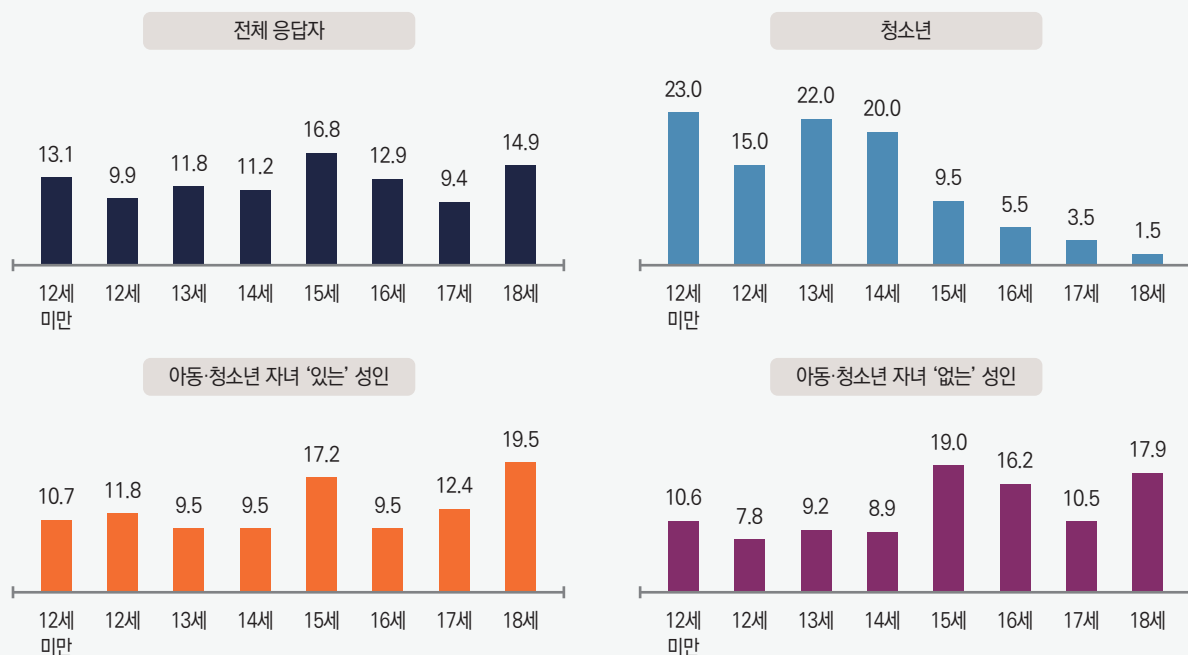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몇 세 이하(몇 세까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알아봤다. 응답자들에게 '만 나이'를 기준으로 '12세 미만'부터 '18세'까지 총 8개 보기를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응답자의 선택은 특정 연령에 집중되기보다는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고 '18세'가 14.9%, '12세 미만'이 13.1%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연령도 모두 9~13%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적정 제한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특정한 나이로 뚜렷하게 수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답자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청소년은 '12세 미만'(23.0%), '13세'(22.0%), '14세'(20.0%) 등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15세'(9.5%)부터는 선택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18세'는 1.5%에 불과했다. '12세 미만'에서 '14세'까지의 선택 비율을 합치면 80.0%에 이른다. 반면 성인 두 집단은 특정 연령대에 이처럼 뚜렷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15세'와 '18세' 등 비교적 높은 연령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 청소년은 성인보다 반대 입장이 많았다는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면, 청소년 당사자는 자신들의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해당 정책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하는 방식을 더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인 응답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 비교적 높은 연령까지 유지되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듯 보인다. 이는 앞서 청소년 나이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 자율성 확대 대 보호·제한 유지 인식의 결과에서 성인 두 집단이 청소년기 내내 보호·제한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 많이 선택한 것과도 같은 방향의 결과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 국내 도입 시 '적정 제한 연령' 인식('만 나이'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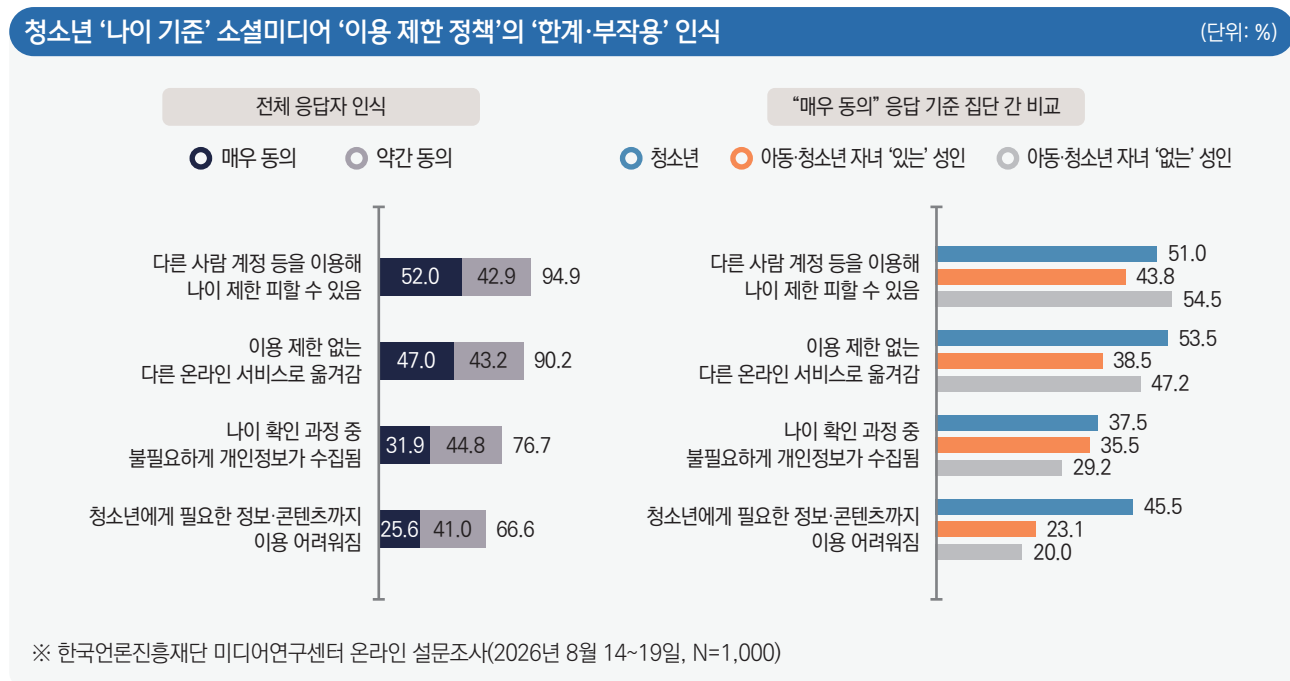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부분은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계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었다. 관련해서 총 4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4점: 매우 동의)로 물었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 나이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이 94.9%(매우 동의 52.0%, 약간 동의 42.9%)로 가장 많았다.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90.2%)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즉, 응답자들은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청소년이 제한을 우회하거나, 이용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데에는 76.7%가 동의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까지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도 66.6%로 절반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은 만큼, 세 집단 간 비교에서는 “매우 동의” 응답만 따로 살펴봤다. 우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51.0%,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 43.8%, 자녀 없는 성인 54.5%로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다른 온라인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은 청소년의 ‘매우 동의’ 비율이 53.5%로 자녀 있는 성인 (38.5%)보다 15.0%p 높았다. 특히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콘텐츠까지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항목이었다. 청소년은 45.5%가 이에 매우 동의한 반면, 자녀 있는 성인은 23.1%, 자녀 없는 성인은 20.0%로 청소년의 절반 안팎에 그쳤다.

앞서 이용 제한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성인의 찬성 비율이 청소년보다 크게 높았지만, 정책의 한계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찬반 입장에 따라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연령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상당한 공감을 보인 가운데, 청소년은 특히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이나 필요한 정보·콘텐츠 이용의 어려움처럼 정책 시행이 자신들의 실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3) 제도·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 인식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능 제한, 학교 교육, 부모의 지도, 청소년의 자율적인 이용 조절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4점: 많이 중요함)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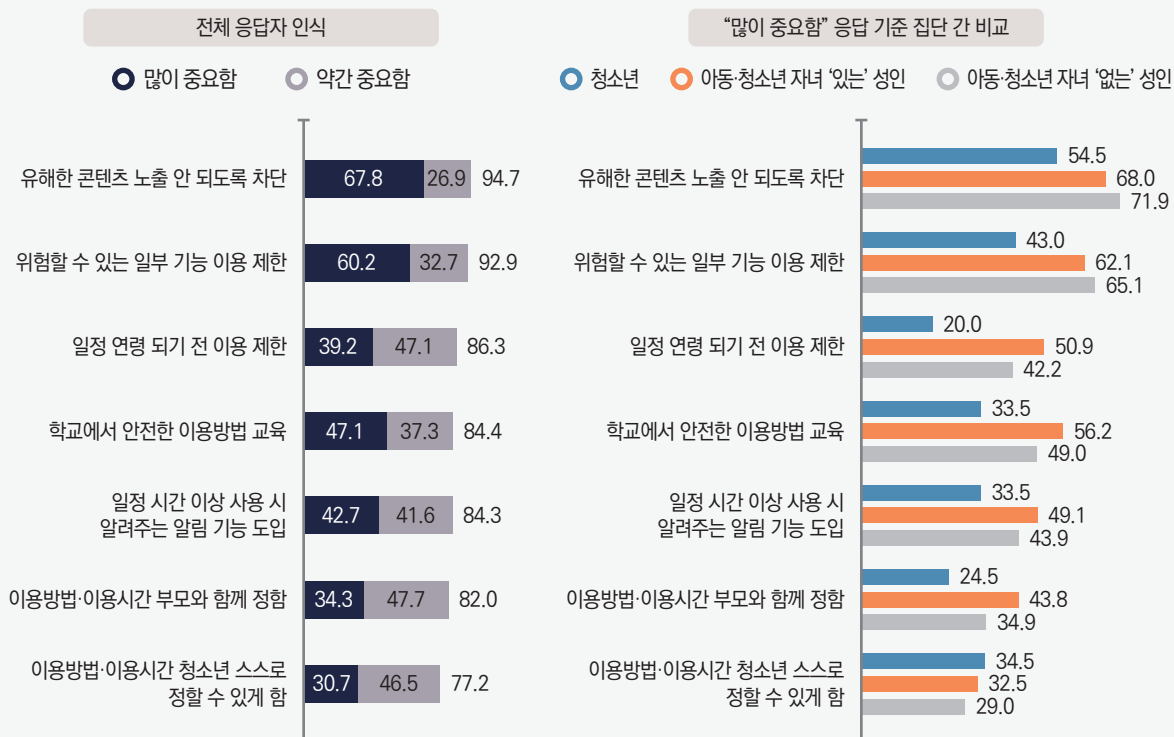
조사 결과, 모든 방안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77%를 넘었다. 그중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 94.7%(많이 중요함 67.8%, 약간 중요함 26.9%)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92.9%)도 90%를 웃돌았다. 그 뒤로는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86.3%, ‘학교 교육’ 84.4%, ‘일정 시간 이상 이용 시 알림 기능 도입’ 84.3%, ‘부모와 함께 이용방법·이용시간 정하기’ 82.0% 순이었다. ‘청소년이 이용방법·이용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지만, 이 역시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7.2%)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모든 방안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세 집단 간 비교에서는 “많이 중요함”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과 성인 집단 간 차이였다. ‘유해 콘텐츠 차단’과 ‘위험할 수 있는 일부 기능 제한’은 세 집단 모두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이었는데, 청소년(각각 54.5%, 43.0%)은 성인 두 응답군에 비해 비율 자체가 눈에 띄게 낮았다.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은 앞서 별도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20.0%)과 두 성인 집단(각각 50.9%, 42.2%)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교육이나 부모와 함께 이용방법·이용시간을 정하는 방안에서도 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이 성인보다 낮았다.

반면 이용방법·이용시간을 청소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34.5%) 쪽이 아동·청소년 자녀 있는 성인(32.5%), 자녀 없는 성인(29.0%)보다 소폭이지만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앞서 청소년 응답자들이 성인보다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율성을 중시하고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와도 같은 방향이다.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별 중요도 인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종합하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두 중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지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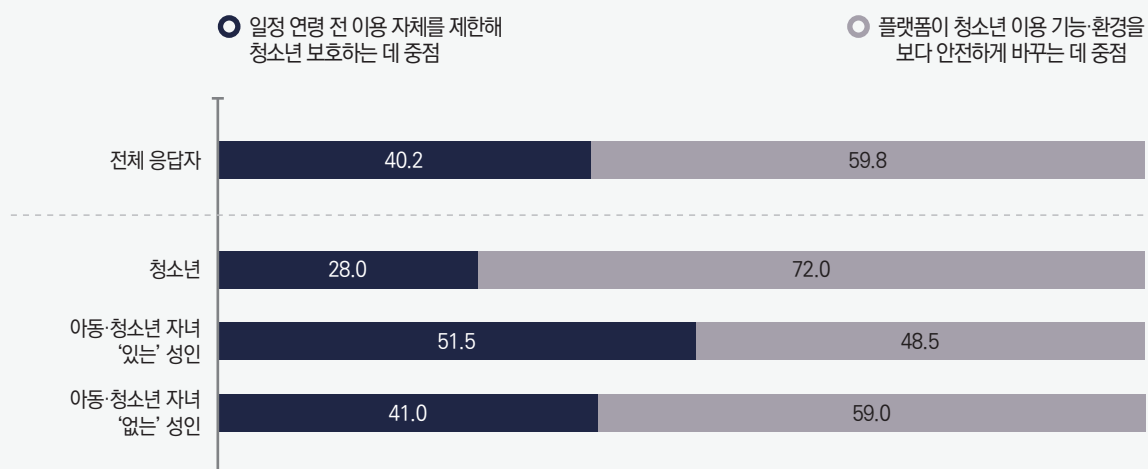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부분은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였다. 이를 위해 “일정 연령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능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두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8%가 ‘플랫폼의 기능·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데 중점’을 두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40.2%)보다 19.6%p 더 높은 비율이다.

집단별로 구분해 비교해 본 결과, 앞선 여러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성인 간에 뚜렷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청소년은 72.0%가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용 제한’에 우선순위를 둔 비율은 28.0%에 그쳤다.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이용 제한’을 우선시한 응답이 51.5%로, ‘플랫폼 책임’(48.5%) 쪽보다 선택 비율이 소폭(3.0%p)이지만 높았다. 자녀가 없는 성인은 ‘플랫폼 책임’(59.0%) 쪽으로 응답이 좀 더 쏠렸으며, 다른 두 집단의 중간 정도 비율을 보였다.

앞서 여러 문항에 걸쳐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이용 제한 방안의 중요성을 응답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됐다. 그런데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가운데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이 문항에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이는 응답자들이 이용 제한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보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양한 성격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조사한 바로 앞 문항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보다 유해 콘텐츠 노출 차단, 위험한 일부 기능 이용 제한과 같은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 제한’ 대 ‘플랫폼 책임’ 우선순위 인식

(단위: %)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26년 8월 14~19일, N=1,000)

04 맺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높게 형성돼 있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보호와 제한이 필요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청소년이 여러 측면에서 성인과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을 성인보다 높게 평가하고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우려했으며,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선택을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성인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고, 정책이 도입될 경우 적정 제한 연령을 묻는 문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 기준 이용 제한과 같이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을 해석할 때,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 결과에서는 연령 기준 이용 제한에 대한 찬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7%가 연령 기준 이용 제한 정책에 찬성했고, 다양한 안전 방안 가운데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다수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체 응답 결과에는 조사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성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돼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한 우회나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 등 정책 시행에 따른 한계와 부작용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 기준 이용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인식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성인 간 인식 차이도 동시에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 역시 이번 조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된 부분이다.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 추천 방식의 영향 점검 등 여러 영역에서 플랫폼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방안별 중요도에서도 유해 콘텐츠 차단과 위험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의 이용 제한이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를 직접 비교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9.8%가 플랫폼의 기능과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연령 기준 이용 제한에 대한 높은 지지가 곧 이를 청소년 보호의 최우선 방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접근과 함께 청소년이 실제로 이용하는 플랫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와 학교의 지도·교육 역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지원하는 또 다른 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도·교육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부모 지도와 학교 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모두 절반을 넘긴 가운데, 구체적인 지도·교육 경험에서는 내용별 차이도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학교 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점이 눈에 띄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뿐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가정·학교에서의 지도·교육, 그리고 청소년의 자율적인 조절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적지 않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때에도 연령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정책 인식을 충분히 파악하는 한편, 플랫폼과 가정·학교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조사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인식, 경험 및 평가를 알아보기로 1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엠브레인리서치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조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으며, 연령대(만 나이 아닌, 출생 연도 기준 ‘우리 나이’)별로는 10대(15~19세)부터 50대까지 각 20%씩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20.1%, 인천·경기 36.6%, 충청권 11.6%, 경상권 24.4%, 전라권 3.2%, 강원·제주 4.1%였다.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 응답자 800명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14.8%, 대학 재학 및 졸업 76.5%, 대학원 재학 이상이 8.8% 비율이었다. 실사는 2026년 8월 14~19일에 이뤄졌다. 조사 안내 이메일은 9,804명에게 발송됐으며, 그중 1,242명이 조사 페이지에 접속했고, 성별·연령대·거주지역별 할당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중간에 자진 중단한 이들을 제외하고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1,097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데이터 클리닝 과정 등을 거쳐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0\%$ 포인트다.

Media Survey

2026년 4호 2026. 9. 1.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임석규

기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9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698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6

〈미디어서베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